

퀴어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제: 대표적 퀴어신학자들의 왜곡된 성서해석에 대한 비판

곽혜원 경기대 초빙교수¹⁾

[한글 초록]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퀴어신학은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정치투쟁 속에서 태동하였다. 동성애·동성혼 투쟁세력이 강력한 공격 대상으로 삼은 상대는 기독교 정통신학인데, 그 이유는 2천여 년 동안 동성 간 성관계를 정죄했던 정통신학을 공격하지 않고는 동성애의 궁극적 정당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통신학의 근간을 교란하는 친동성애적 신학 체계가 구축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퀴어신학’(queer theology)이라는, 사실상 신학이라 명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 파행적인 시도이다.

퀴어신학은 정통신학에서 괴이한 것으로 배제되었던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비정상적인 동성혼을 정상화하는 신학체계를 수립하는 데 종교적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가장 대표적 1세대 퀴어신학자들인 데윈 셔윈 베일리(D. S. Baily), 존 보스웰(J. Boswell), 다니엘 헬미니악(D. A. Helminiak), 테오도로 제닝스(T. Jennings)의 퀴어신학적 성서 왜곡을 살펴봄으로써, 퀴어신학이 시종일관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서를 왜곡함은 물론, 정통 기독교 신앙 및 신학과 양립할 수 없는 이단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신학계는 신성모독적인 퀴어신학에 예언자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위중한 문제의식 속에서 퀴어신학의 이단성을 규명해야 할 시점이다. 퀴어신학은 성서는 물론 정통교리를 외설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이단보다 더 심각하게 기독교 신앙 및 신학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 신학교육 현장에서는 친동성애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퀴어신학의 폐해로부터 신학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적 과제를 부과

1)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튀빙엔(Tübingen) 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Dr. theol.)를 받았다. 현재 경기대학교 초빙교수이며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대표이다. 단독저서로는 *Das Todesverständnis der koreanischen Kultur*(한국 문화의 죽음이해), 『현대 세계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자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한국출판문화진흥원 우수저작)을 출간했으며, 공저로는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 교회』,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죽음 목회』,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죽음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 『사람은 왜 죽는가?』,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 연구』, 『유평과 니즘과 하나님의 나라』, 『여성과 젠더』가 있다. 역서로는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의 저서들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희망의 윤리』를 번역하였다.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본 논문은 한국 신학계가 퀴어신학에 대해 단호한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을 서두를 뿐 아니라, 신학계를 새롭게 정확하고 신학교육의 갱신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주제어: 퀴어신학, 퀴어성서 주석, 동성애, 동성혼, 신학교육]

I. 서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정치투쟁 속에서 태동한 퀴어신학

인류문명은 ‘68혁명’을 분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양분될 만큼 문명사적으로 대전환을 겪었다. 68혁명은 서구의 사상과 사고방식, 더 나아가 세계정신을 파행적으로 전복시킨 문화혁명으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200여년 간 진행되어 온 성윤리 해체-가정 해체-기독교 해체의 문명사적 흐름이 역사의 한순간에 바로 68혁명을 통해 제2차 성혁명으로 발화한 것이다. 68혁명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를 미화하기도 하지만, 실상 68혁명은 그동안 금지되었던 행위(특히 성행위)에 있어서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는 성혁명이었다.²⁾ 1차 성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이어 2차 성혁명의 단초가 된 68혁명은 빛나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통해 탄생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에 전적으로 반기를 제기함으로써, 서구 기독교 문명의 지지기반을 파괴하는 거센 시대조류를 만들어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동성애 옹호세력이 68혁명을 결정적 계기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투쟁 전선을 구축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기념비적 사건은, 68혁명 이듬해인 1969년 6월 28일 뉴욕에서 동성애자들과 경찰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스톤월 폭동’(Stonewall Riot)과 그 이후 50여년 동안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집요한 정치투쟁으로 점철된 역사이다. 스톤월 폭동을 계기로 정치의식을 갖게 된 동성애 옹호세력은 주류 정치권에 진입함으로써, ‘게이해방전선’(Gay Liberation Front: GLF)을 결성하여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폭력도 불사했다. 또한 스톤월 항거일을 기념하여 1970년부터 시작된 게이 퍼레이드(Gay Parade)가 2년 후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동성애자혁명동맹 등과 결탁하여 글로벌 퀴어 축제로 발전했다.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정치투쟁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의학적·법률적·신학적

2) 68혁명이 일어난 발단은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시작되었다. 파리 근교의 낭테르(Nanterre)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의 출입을 금지당하자 성별 분리 규정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를 학교 당국이 경시하다가 작은 불씨를 엄청나게 키웠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자들도 가세하여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프랑스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 히피(hippie) 문화와 베트남 반전(反戰) 운동을 통해 국제화·조직화된 좌파 단체와 연계되어 전 세계적 문화혁명으로 비화했다.

측면에서 필사적으로 감행되었다. 먼저 의학적으로 동성애가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이라는 치욕스러운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 강행되었다. 일찍이 동성애는 정신의학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 칼 융(C. G. Jung), 알프레드 아들러(A. Adler) 등의 영향 아래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sexual identity disorder)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동성애 옹호세력은 3년 동안 (1970-1973) 미국정신의학회(APA)에 소속된 정신과 의사들에게 폭력행위와 살해위험을 가함으로써³⁾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III』 (DSM-III)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과학이 사회적 이슈에 굴복당한 정치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APA의 불의한 결정을 분기점으로 각종 학회들이 동성애를 비(非)질병화했고, 마침내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자연적 변이’로 인정했다.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인류 역사의 판세를 역전시켰으므로써, 인류 문명사에 거대한 영적·사상적 흑역사가 개막되었다.

또한 동성애 옹호세력은 법률적으로 동성혼이 또 다른 종류의 정당한 결혼형태라고 공인받기 위해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생활동반자법→시민결합법(생활 동반자법과 동일하게 동거인에게도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법)의 수순을 거치면서 끈질기게 투쟁한 결과, 급기야 2015년 6월 26일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한 미국은 동성혼 합헌을 판결했다. 문제는 정치인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종교인의 반응을 살폈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할 교회의 방파제가 붕괴된 일이다. 주지하듯이, 미국 최대 개신교단 장로교회(PCUSA)가 2014년 디트로이트 총회(221차)에서 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하기로 결의한 후, 2015년 3월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렇다면 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함부로 변경해선 안 되는가? 그것은 결혼과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남편 같은 기본용어가 재정의되면, 본래의 의미와 목적마저 변질되기 때문이다. 결혼 및 가정을 훼손하면, 개인과 사회, 국가와 문명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성애 옹호진영이 강력한 공격 대상으로 삼은 상대는 다름 아닌 기독교 정통신학이다. 그 이유는 2천여 년 동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해왔던 정통신학을 공격하지 않고는, 특히 게이와 레즈비언의 섹스를 단죄하는 성경을 재해석하지 않고는 동성애의 궁극적 정당화가

3) 이에 대해 「뉴스위크」 (Newsweek)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게이해방전선(GLF)은 여러 차례 의학 회의를 방해해왔고, 30여명의 무장된 그룹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정신의학회(APA) 회의장에 난입했다. 그들은 정상적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20여분 동안 회의장을 혼돈 상태로 뒤집어놓았다”(1971.08.28., 47면).

4) 그러므로 사회학자들은 한 문화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결혼 및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사회학자 로버트 나이트(R. Knight)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법률과 문화에서 특별한 지위가 주어졌다. 결혼은 법률과 헌법보다 앞선 것이며, 인류 사회학적인 실재로서 단순히 법률적인 것이 아니다. 가정이 없이는 어떤 문명도 생존할 수 없고, 가정을 부적절하게 만드는 사회는 역사에서 쇠퇴했다”: M. L. Brown/자유와인권연구소 옮김,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 (서울: 쿰란출판사, 2017), 241에서 재인용.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이 분명한 성경구절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집요하게 전개되었다. 결국 정통신학의 근간을 교란하고 친동성애적 신학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착수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퀴어신학’(queer theology)이라는, 사실상 신학이라 명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 파행적인 시도인 것이다. 현재 퀴어신학은 서구 교계와 신학계에서 확산일로에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퀴어신학’ 용어는 1990년대 이후 철학과 사회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체주의에 입각하여 논의된 ‘퀴어이론’(queer theory) 또는 ‘퀴어 비판이론’(queer critical theory)을 신학에 차용한 것이다.⁵⁾ 신학에 ‘퀴어’ 용어를 처음 적용시킨 것은, 1993년 게이·레즈비언 선언을 『행동화한 예수』(Jesus Acted Up)라는 책으로 낸 로버트 고스(R. Goss)로 알려져 있다. 퀴어신학은 ‘낯설고 이상함’을 뜻하는 ‘퀴어’(queer)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정통신학에서 낯설고 이상한 것,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배제되었던 테마를 신학의 중심에 내세우고 이를 억압에서 해방 시키기 위한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서 낯설고 이상한 것은 동성애를 전적으로 의미함으로써, 퀴어신학은 생소하고 괴이한 대상으로 혐오되어왔던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정상화하는 데 종교적 목적이 있다. 즉 퀴어신학의 시도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신학 체계를 수립하는 데 소기의 목적이 있다.

II. 대표적 퀴어신학자들의 왜곡된 성서해석

1. 데릭 셔윈 베일리의 퀴어신학적 성서 왜곡

‘퀴어신학’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 선구적 주장을 했던 대표적 퀴어신학자는 1955년 『동성애와 서구 기독교 전통』(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을 발표한 데릭 셔윈 베일리(D. S. Bailey, 1910-1984)이다. 1962년 영국 웰스(Wells) 대성당의 캐논(canon)으로 사역했던 성공회 사제 베일리는 이 저서를 통해 친동성애적 논의의 포문을 열음으로써, 동성애를 둘러싼 그동안의 역사적 과정을 재평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특히 창세기 19장에 등장한 소돔 사람들의 죄가 동성애라는 전통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손님을 환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논의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러한 베일리의 시도는 향후 퀴어신학자들(대표적: 존 보스웰, 다니엘 헬미니악, 테오도르 제닝스 등)의 소돔

5) Cf. L. C. Schneider, "Homosexuality, Queer Theory and Christian Theology", Religious Studies Review 26/1(Jan., 2000), 3-12.

사건을 둘러싼 성서 주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진의(眞意)를 왜곡시키는 사태의 물꼬를 트게 했다.

종전까지 정통신학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성서의 첫 견해를 발견했는데, 곧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포함한 거주민들의 통탄할만한 죄악을 심판하셨다고 해석해왔다. 창세기 19장의 소돔 이야기와 유사하게 전개되는 사사기 19장의 레위인 첩 이야기도 동일하게 해석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두 본문에 등장하는 ‘야다’(yada: יָדָע)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야다’는 ‘친분을 갖다’의 의미가 있지만, 베일리도 밝혔듯이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943회 중 10회의 사례에서는 임신의 결과를 수반하는 이성과의 성관계(대표적: 창 4: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יָדָע] 하와가 임신하여”)를 의미한다.⁶⁾ 그러므로 교회사 전반에 걸쳐 성서 주석자들은 소돔과 레위인 첩 이야기가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을 나타내는 매우 부정적 사례로 해석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베일리는 이 전통적 견해를 부정하고 두 사건에서 너무나 명약관화한 ‘야다’의 의미를 성관계가 아닌 친교의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소돔 사건을 ‘이방인을 환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이러한 베일리의 가설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먼저 지적할 것은 룯이 “남자와 한번도 동침하지 않은(יָדָע)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소돔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려 한 일이다(창 19:8). 더욱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서 집주인이 “자신의 처녀 딸들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것을 제안하면서 기브아 사람들의 통제 불능으로 보이는 성욕을 진정시키고자 대응했다는 사실이다(삿 19:24). 무엇보다 창 19:8과 삿 19:25에 사용된 ‘야다’가 명백히 성관계를 의미함은 아무도(베일리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베일리는 두 본문 안에서 바로 앞서 기술된 ‘야다’(창 19:5; 삿 19:22)를 전혀 다른 의미(‘친분을 갖다’)로 무리하게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이다. 만약 기브아 사람들이 단지 ‘친분을 쌓으려는’ 건전한 목적이었다면, 과연 집주인이 ‘처녀 딸들과 첩’을 내어준 무리한 용단까지 내렸을 것인지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열린 생각을 가진 학자들조차 베일리의 주해를 신뢰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성서학자 빅터 폴 퍼니쉬(V. P. Furnish)는 그 거주민들이 동성 강간을 의도했을 거라고 인정한 바 있다.⁷⁾

베일리는 성관계를 배제하고 친분의 의미로 ‘야다’를 해석함으로써, 창 19장의 소돔 이야기가 이방인에 대한 환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단언하였다: “소돔 거주민들의 죄악은 동성애가 아니었다. 그들의 죄는 집주인 룯이 손님을 환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었

6) D. S.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don: Longmans, Green & Co., 1995), 2f.

7) V. P. Furnish,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Homosexuality?”, in: *Caught in the Crossfire: Helping Christians Debate Homosexuality*, ed. Sally B. Geis and Donald E. Mess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60.

다.”⁸⁾ 그러면서도 그는 ‘야다’가 지닌 성적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에 이 사건을 남성 대 남성 항문 성폭행 사건으로 해석함으로써, 고대 세계의 관습, 곧 전쟁에 진 적군을 여성으로 대함으로 굴욕을 주는 모욕적 행위와 연관시키기도 했다.⁹⁾ 그런데 베일리는 소돔의 특별한 죄가 음란과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기술한 유다서 7절 본문을 해석할 때는 창 19장과는 미묘하게 다른 톤의 가설을 제기했다. 즉 유다서 본문을 주해하면서 하나님이 소돔 거주민을 심판한 이유가 동성애 자체 때문이기보다, 그들이 천사와 성관계를 갖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일리는 소돔의 죄 가운데 동성애적 측면은 순전히 부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소돔과 레위인 첩 이야기에서 동성애를 철저히 부정했던 자신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자인했다고 볼 수 있다.

명백히 소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성 대 남성 동성 사이의 성관계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가? 그것은 베일리가 주장하듯이 단지 현대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매우 악한 방식으로 그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텔리 그렌츠(S. J. Grenz)에 따르면, 소돔의 죄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있는 인간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불의하게 대하는 수단으로 바꾼 데 있다. 즉 하나님이 고안하셨던 성적 방식 그대로가 아닌 정반대 행동으로 바꾸어 표출한 데 있다. 그러므로 그렌츠는 소돔의 죄 중에서 동성애 측면은 순전히 부수적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베일리의 주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소돔 사건이 정죄한 죄가 폭력적 동성 강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¹⁰⁾

한편 베일리는 성서가 동성애를 ‘가증한’(toeba, תועבת) 것으로 지칭한 사실로부터 레위기의 성결법이 기록된 당시 우상숭배의 조짐을 우려했던 정황 사이에 일말의 연관성이 있다면, 가증한 것이란 거짓 신들을 가리키는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¹¹⁾ 베일리의 영향으로 동성애가 하나님이 정한 섹슈얼리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견해가 힘을 잃는 상황 속에서, 레위기 18:22와 20:13 본문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레위기 본문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함으로 인해 오늘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제의적 의미를 지녔기에, 이것이 동성애를 비난하는 성서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금하는 레위기 성결법이 윤리규정이란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제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본질적으로 악한 범죄가 아닌 제의적으로 부정한 행위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8) D. S.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5.

9) 위의 책, 31.

10) S. J. Grenz/김대중 옮김,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78.

11) D. S.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60.

동성애와 우상숭배를 연루시킴으로 본의를 왜곡한 해석의 부적절성에 대해 그렌츠는 반박하기를, 레위기 성결법에 함께 나열된 사례, 곧 정액 배출(15:16-18), 월경 중 성관계(15:19-30) 등이 동성 간 성관계와 동일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으로 정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¹²⁾ 단언하면, 구약에서 동성애 관련 형벌이 사형으로 구형될 만큼 엄중했다는 것은 이 범죄의 위중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동성 간 성행위에 사형까지 구형한 율법이 과연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그 깊은 동기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에 열린 자세를 견지한 대럴 랜스(H. D. Lance) 조차 레 18:22와 20:13이 실제로 요구하는 바는 명백해서 동성애 관계는 금지되었고 사형에 처해야 마땅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¹³⁾ 이처럼 동성애가 사형으로 구형되는 위중한 범죄임을 인식했는지, 베일리는 동성애 행위 이외에 성서 어느 곳에도 특정한 성행위를 반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¹⁴⁾

베일리는 ‘가증한’ 것을 논하면서 이것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 행위에서 더 나아가 사물의 질서에 역행하는 모든 것을 지칭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레위기의 동성애에 ‘가증한’이란 용어가 적용된 것은, 이것이 성적으로 자연스러운 행위에 역행하는 행동이며, 참된 질서의 심각한 역전인 우상숭배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논지를 펼쳤다. 여기서 베일리가 비록 우상숭배의 방점이 찍힌 견해라 하더라도 동성애와 창조 질서를 결부시킨 것은 고무적인데, 바로 이것이 동성애를 거부하는 성서의 중요한 동기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다.¹⁵⁾ 레위기 성결법과 함께 사도 바울이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롬 1:26-27)한 것도,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 성행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2. 존 보스웰의 퀴어신학적 성서 왜곡

데릭 셔윈 베일리가 동성애 관련 저서를 출간한 후 25년간 기독교 신학자들은 동성애 주제에 대해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 예일대 역사학 교수이자 게이였던 존 보스웰(J. Boswell, 1947-1994)이 『기독교, 사회적 관용, 동성애』(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를 발표했다. 동성애자 가운데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종신교수로 임용된 보스웰은 게이와 레즈비언 연구에 가장 중요한 학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

12) S. J. Grenz,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82.

13) H. D. Lance, “The Bible and Homosexuality”, 145.

14) D. S.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58.

15) H. D. Lance, “The Bible and Homosexuality”, 145.

책은 동성애자들에게 최고의 권위있는 저서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 사회적 관용, 동성애』는 성서학자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지만, 동성애에 관한 연구를 학문적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종교적 자유주의에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을 인정받아 ‘American Book Award for History’와 ‘Frederic G. Award’를 수상했다.¹⁶⁾ 그러나 히브리어와 고전 헬라어를 비롯한 17개 언어를 구사했던 언어학자이자 역사학자요 명망 높은 교수였던 보스웰은 에이즈로 47세의 나이에 요절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하다.

보스웰은 『기독교, 사회적 관용, 동성애』에서 동성애와 종교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성서와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기독교에 이르는 동성애의 방대한 역사를 매우 정교하게 고찰했다. 이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정의와 다양성을 논한 후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실제로 동성애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중세 기독교가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기술했다. 그러면서 보스웰은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할 성서적 이유를 찾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이를 관용하는 입장을 중세까지 견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대교회가 동성 커플을 허용했으며, 성서가 금지한 것은 오직 특정 형태의 착취적 동성애 행위(일례로 동성애적 매춘과 함께 미성년과의 동성 착취적 성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스웰이 주장한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1.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역사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을 용납했다는 것, 2. 성서가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죄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스웰의 핵심적 논지에 대해 많은 비평가들이 반론을 제기했는데,¹⁷⁾ 여기서 필자는 동성애를 둘러싼 성서적 이해에 대한 보스웰의 쿼어신학적 해석을 집중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먼저 그는 베일리의 주장을 수용하여 창세기 19장 소돔 기사가 구약에서 유일하게 동성애 관계를 지칭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언명했다. 하지만 그는 소돔 사건이 동성애와 무관하며 이방인 손님을 환대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라고 단언했다. 또한 본문에 기술된 ‘아다’는 성행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미미하고, 단지 이방인에 대해 알고 싶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스웰은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한 성서구절은 하나도 없다면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이 사건에는 성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사안도 없다. ... 소돔은 수습회에 걸쳐 악의 표상으로 사용되었지만, 소돔인들의 죄가 동성애로 지칭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¹⁸⁾ 보스웰은 소돔의

16) 많은 사람이 보스웰의 저서에 찬사를 보냈는데, 일례로 저명한 신약학자 리처드 헤이스(R. Hayes)는 “그 박식함이 동성애 이슈에 있어서 권위적 위치를 획득하였다”고 평가했으며, 보스웰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던 로버트 라이트(R. Wright)도 “게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교회사 분야에서 이루어진 가장 수준높은 수정안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신열, “보스웰의 동성애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의 저서 <기독교, 사회적 관용,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회 제45차 학술심포지엄 자료집>(2018.10.20), 228.

17) 특히 R. Hays, “Relations Natural and Unnatural: A Response to J. Boswell’s Exegesis of Rom 1”,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4(1986), 184-215; R.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Nashville: Abingdon, 2001).

18) J.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Gay People in Western Europe from the*

죄악이 동성애가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곁 16:48-49¹⁹⁾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보스웰은 레위기 18:22과 20:13이 동성애 행위를 금하는 구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다루는 성서구절이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 그는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조항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지 않으며, 특히 이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갖는 반감을 설명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스웰은 본문에 나오는 ‘가증한’이라는 단어는 우상숭배에 연루된 의식적 의미에서 불결한 것이지, 오늘날과 같은 동성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레위기가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성애 금지조항 다음에 우상숭배와 관련된 성행위 금지조항이 주어져 있으며, 이 두 금지조항이 모두 ‘가증한’으로 지칭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성애를 대하는 성서의 입장은 일관되게 정상적 성행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정죄는 확고부동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웰은 동성애를 다룬 성서의 대표적 본문들이 동성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특히 그는 창세기 19장 본문이 원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르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동성애 사건으로 해석한 전통신학의 견해를 무시하고 이방인에 대한 환대를 저버린 사건으로 해석했다. 보스웰은 ‘야다’를 작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한 단어의 의미를 같은 본문 안에서 서로 상반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야다’가 창 19장에서 사용된 문맥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단어가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이 너무나 명백하다. 7절에서 롯은 소돔인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간곡히 요청했는데, 여기에 언급된 ‘악을 행하다’는 뜻을 지닌 ‘라야’(רַיָּא)는 ‘해를 끼치다’·‘상처를 입히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창 19:7과 사 19:23에 모두 ‘야다’와 ‘라야’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소돔인들과 기브아인들의 행위가 집단 성폭력이었음을 분명히 암시한다.²⁰⁾

더욱이 롯이 “남자와 한번도 동침하지 않은”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소돔 남성들에게 제안했음에도 그들이 거절했다는 사실은, 소돔의 죄악이 남성 동성애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이었다는 분명한 결론을 도출케 한다. 창 19장과 유사하게 사 19장에 나온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서도 ‘야다’와 ‘라야’가 함께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 주인이 기브아 남성들에게 “이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23절)고 간청하면서 “처녀 딸들과 자신의 첩”(24)을 내어줄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은 “그 여자를 윤간하여 밤새도록 육보인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Fourteenth Centu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93ff.

19) “주 야훼의 말씀이나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20) 이민규, “성경으로 동성애를 논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성경과 신학』 81(2017), 308.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25절). 두 본문에서 분명히 동일한 단어 ‘야다’가 성관계 를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고, ‘라이’가 강간 및 성폭행에 사용되었음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그러므 로 베일리의 추측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보스웰이 ‘야다’의 의미를 성관계가 아닌 단순히 친교를 위한 앉으로 해석한 것은 억지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스웰은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겔 16:48-49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 본문이 소돔의 교만함, 풍족한 중에도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함, 태평함을 지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50절(“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에 언급된 ‘가증함’에 대해선 이상하게 침묵한다. 겔 18:10-13에는 아들이 범한 8가지 죄악의 리스트가 등장하는데, 이 중 하나가 ‘가증함’(18:12)으로서 다른 7가지 죄악을 총칭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죄악을 나타낸다. 겔 18장에 나타난 ‘가증함’의 용례를 겔 16장에도 적용한다면, 겔 16:50의 ‘가증함’은 다른 죄악들 로부터 구별되는 또 다른 죄악, 곧 레 18:22와 20:13에 언급된 동성애, 특히 남성 간 항문성교를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²¹⁾ 그리고 소돔의 죄악이 레위기가 사형으로 금한 ‘가증한’ 동성애와 관련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보스웰이 내세우는 소돔의 죄악이 구약성서에 동성애라고 언급된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확실히 왜곡되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원래 ‘가증한’ 일은 신적으로 주어진 가이드라인인 율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²²⁾ 인간 존재의 참된 정체성에 어긋나는 도덕적 범죄, 특히 신성모독적 악행을 가리킴으로써, 이들 중 상당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보스웰은 레위기 18:22와 20:13에 나온 ‘가증함’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증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한 행위가 아닌, 제사를 위한 의식적 사용에 있어서 불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²³⁾ 이런 맥락에서 보스웰은 동성애 금지가 윤리규정이 아니라 제의적 의식에 관한 금지규정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대다수 구약학자는 ‘여자와 동침하다’ 라는 표현을 남성 간 항문 섹스로 인식한다. 특히 레 20:13은 능동적 행위자(남성 역할)와 수동적 행위자(여성 역할) 모두가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남성 간 항문 섹스가 하나님과 고안한 남녀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²⁴⁾ 이로써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동성 간 성관계가 사형이라는 형벌을 야기하는 범죄라는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동성애 금지와 무관하다는 보스웰의 주장에 대한 확실한 논박이 될 수 있다.

한편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명확한 성서본문 롬 1:26-27을 보스웰은 어떻게 해석했는

21) R. A. Gagnon, “The Old Testament and Homosexuality: A Critical Review of the Case Made by Phyllis Bird”, *Zeitschrift für alttestamentische Wissenschaft* 117 (2005), 372.

22) D. Wold, *Out of Order: Homosexuality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110f.

23) J.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00f.

24) S. J. Grenz,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78.

가? 우선 그는 사도 바울이 동성 간 성행위를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윤리적으로 중립적이어서, 선하게 쓰일 수도 악하게 쓰일 수도 있을 뿐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평가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보스웰은 바울이 본문에서 세 단어들, 곧 ‘비정상적인’(para physin), ‘부끄러운’(atimia), ‘망측한’(aschemosyne)을 사용하여 동성 간 성행위를 묘사한 점을 주목한 후, 이 단어들을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로 새롭게 비평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즉 1) ‘para physin’은 ‘비정상적인’·‘자연에 반하는’→‘뜻밖에’·‘평범한·일상적이지 않은’으로 재해석하면,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도덕적으로 잘못이라거나 윤리적으로 단죄한다거나 하나님을 거스른다거나 창조물의 신성한 질서에 반대된다거나 비정상적·부자연스럽다거나 사물의 보편적 본성과 대립된다는 뜻의 함축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행동’으로 이해된다. 2) ‘atimia’은 ‘부끄러운’→‘영예롭지 못한’(도덕적·윤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은)으로 해석한다. 3) ‘aschemosyne’은 ‘망측한’→‘부적절한’·(도덕적·윤리적 판단이 가미되지 않은)으로 해석한다. 이로써 보스웰은 바울이 남성 간 성행위가 평범하지 않고 영예롭지 못하며 부적절하다고 말할 뿐 결코 도덕적·윤리적으로 단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레즈비언 섹스 금지도 인용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울의 전체적 요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 행태의 차이가 윤리적으로 중립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보스웰은 동성 간 성행위를 정죄한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한 본문,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궁극적 의도와 목적을 위반함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자초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정죄한 성서 말씀의 진의(眞意)를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했다.

그렇다면 보스웰은 지적으로 탁월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논거가 빈약한 억지이론을 강변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성서가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규정한다는 주석가들의 너무나 명확한 주해를 애써 외면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이해 속에 함몰되어 살았다. 일례로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성애를 이성애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²⁵⁾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가 정상적 성행위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 두 철학자의 견해와 고대 사회에서 동성애의 용인 문제는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플라톤이 긍정한 동성애는 육체관계를 초월한 신들 사이의 천상적 사랑에만 국한하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성애를 병적이라고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고대 사회 전반에 동성애는 일탈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²⁶⁾ 무엇보다도 보스웰의 성서 주해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포함으로써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25) J.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59.

26) S. J. Grenz/남정우 옮김, 『성윤리학』 (서울: 살림, 2003), 390ff.

3. 다니엘 헬미니악의 퀴어신학적 성서 왜곡

조직신학자이자 철학자·심리학자인 다니엘 헬미니악(D. A. Helminiak, 1942~) 웨스트조지아 주립대 교수는 데릭 셔윈 베일리와 존 보스웰이 선구자적으로 개척한 동성애 연구의 기반 위에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퀴어신학이라는 장(場)을 열었다. 그는 1976년 게이로 커밍아웃한 후 이듬해부터 로마가톨릭 사제로서 남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교역 활동을 시작한 이래 가톨릭교회 내 젠더 퀴어(=성소수자, LGBTQ+)를 옹호하는 비영리 네트워크 'DignityUSA'를 돕고 있다. 특히 '퀴어신학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헬미니악이 1994년 출간한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What the Bibel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은 성서 본문을 당시의 역사적·사회적 정황에 부합하게 해석하자는 취지에서 동성애 문제를 연구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헬미니악은 이 책의 서두에서부터 동성애자들의 끔찍한 비극이 편견 및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로 인해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성서를 믿는 종교에게 모든 비극의 책임이 있으며, 성서를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와 학대를 정당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²⁷⁾ 그러면서 그는 성서가 반동성애 입장을 전혀 지지하지 않음은 물론 동성애자들의 윤리성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한 한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고 시종일관 강변한다: “『성서』가 동성애를 단죄할 어떤 진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분명한 사실이다. ... 동성애를 단죄하려는 목적으로 『성서』를 인용한다면 이에 대해 분개해야 마땅하다. ... 동성애가 그 자체로 어떤 식으로든 불건전하다고 할 만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²⁸⁾; “『성서』는 동성 성교 행위 자체나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남녀 동성애 관계의 도덕성에 관해 아무런 직접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²⁹⁾

헬미니악이 생각하는 동성애 문제의 중요한 관건은 “성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며, 그의 성서 읽기는 역사 비평적 방법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입장을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하는 성서의 이해는 오로지 고대 세계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성서 저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대표적: 성적 지향)이 대두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³⁰⁾ 헬미니악의 선례를 따라 퀴어신학자들은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보수주의 성서학자들의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을 통해 동성애가 죄악시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성서에 기록된 동성애를 역사 비평적으로 재해석한다. 이들은 아무리 친동성애적

27) D. A. Helminiak/김강일 옮김,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서울: 해울, 2003), 25f.

28) 위의 책, 29.

29) 위의 책, 201.

30) 위의 책, 32.

신학을 전개해도 문제의 근원을 공략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대적으로 성서의 권위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데릭 셔윈 베일리와 존 보스웰의 퀴어신학적 성서해석을 수용하여 헬미니악 역시 창 19장의 소돔 사건부터 실마리를 풀어간다. 먼저 헬미니악은 본문에 사용된 ‘야다’의 성적인 의미를 부정하면 성서 주해의 신빙성을 잃는다는 사실을 의식했는지, 소돔 사건에서 분명히 성적인 언급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³¹⁾ 하지만 그는 본문의 주된 관심이 동성 성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핵심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고대 사회의 기본 규칙을 위반한 학대와 폭행이라고 못 박는다.³²⁾ 헬미니악은 샷 19장도 유사하게 해석함으로써, 소돔인들의 비열함과 잔인함 때문에 단죄를 당했듯이 기브아인들의 냉혹함과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두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는 딸들을 강간에 내어주려는 시도가 그에 못지않게 끔찍하다고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헬미니악은 소돔과 기브아 사건으로 동성애를 단죄하는 것은 본문을 오용하는 일이라면, 학대와 잔혹함이야말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³³⁾

헬미니악이 창 19장과 샷 19장에 나온 동성 성관계를 최대한 부수적으로 다루었다고 주장한다면, 레 18장과 20장에서는 남성 간 성행위를 직접적으로(구약성서에서는 유일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그는 두 퀴어신학자들과 유사하게 성결범이 섹스의 고유한 본질을 위배한 성적 이유가 아닌 종교적 이유, 곧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에 동성 성행위를 금한다고 강조한다. 즉 레위기 본문에서 남성 간 동성애 금지는 섹스 자체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적·윤리적 관심이 아닌, 오로지 부정함과 거룩함에 대한 종교적 관심에 기반한다는 것이다.³⁴⁾ 그러면서 헬미니악은 ‘망측한 짓’을 성결 규칙을 위반한 ‘부정한 짓’으로 해석하면서, 본문이 금지하는 것은 고대의 이상적 질서(남자는 삽입당하면 안 되고 오직 여자만이 삽입당해야 하는 질서)를 깨뜨리고 용인된 성역할을 혼란시키는(남자로 하여금 여자구실을 하게 함으로 이상화된 만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남성 간 삽입 성교라고 말한다.³⁵⁾

레위기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초기 유대교의 사고방식이 성에 대해 자유로웠기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 vs. 이성 간 성행위를 분류하지 않았다고 헬미니악이 주장한 점이다. 즉 당시에 남자와 여자 중 누구와 성행위를 했느냐보다, 삽입을 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도 한다.³⁶⁾ 더욱이 남성 간 삽입 성교의 문제점은 다른 종류를 뒤섞는

31) 위의 책, 40.

32) 위의 책, 41ff.

33) 위의 책, 44, 50.

34) 위의 책, 59.

35) 참고로 언급할 것은 헬미니악이 레위기가 동성애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금지시킨다고 주장한 반면, 신약성서는 성결함이나 부정함이 관건이 아니고 다만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가 중요할 뿐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위의 책, 90.

일을 혐오하는 고대 유대교의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된 행위였다고 부연 설명한다. 여기서 헬미니악의 견해가 베일리와 보스웰의 입장과 미세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헬미니악은 레위기 성결법이 남성 간 성관계를 망측한 짓이라고 금지한 것은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초기 이스라엘의 유대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이와 아울러 동성 성관계가 옳으나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하는 이 시대에, 사회적 관습이 변한 오늘날 윤리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레위기를 인용하는 것은 성서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한 관습의 문제에 불과한 것을 윤리적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결론짓는다.³⁷⁾

성서 전체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가장 분명하게 정죄하는 롬 1:26-27 본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헬미니악은 보스웰의 주해를 전적으로 따른다. 그는 남성 간 성행위를 부정하게 바라본 레위기 성결법과 성결을 쟁점으로 삼은 바울의 로마서 사이에 고의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기대의 위반과 율법에 따른 부정함이 죄가 아니듯이, 동성애가 도덕적·윤리적 잘못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다. 헬미니악은 특히 롬 1:27에 나온 ‘응분의 벌’을 동성애로 인한 성병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면서, 잘못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지 않은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로마서에서 동성 간 성관계는 단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판단한 이방인들의 부정함을 보여주는 예일 뿐이며, 로마서가 이에 대해 중립적이기 때문에 죄악 시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다.³⁸⁾ 이처럼 헬미니악은 성서를 문맥에 따라 읽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막무가내로 왜곡시킴으로써, 진리를 앞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비틀어 버리고 있다.

신약성서에 기록된 동성애 관련 또 다른 중요한 두 본문 고전 6:9과 딤후전 1:10에 대한 헬미니악의 해석은 이렇다. 먼저 두 본문에서 중요한 관건은 탐색하는 자(malakoi: 남성과 성관계 시 여성 역할을 하는 자·남성에게 삽입당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arsenokoitai: 남성과 동침하는 자·남성에게 삽입하는 자)의 해석 문제이다. 그런데 헬미니악은 두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다면서, 두 본문은 성서가 기록될 당시 동성애와 관련된 악습(착취와 성적 학대)을 단죄한다고 주장한다. ‘arsenokoitai’가 설령 남성 간 성행위를 가리킬지라도, 두 본문이 남성 간 성행위 자체를 금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유대-기독교에서 ‘arsenokoitai’는 남성 간 방자한 섹스를 가리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헬미니악은 성서구절이 반대하는 것은 남성 간 성행위 자체가 아닌 동성애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성서가 시종일관 단죄하는 것 역시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의 남용이라고 결론짓는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약의 마지막 본문 유다서 7절에서

36) 위의 책, 69.

37) 위의 책, 53-79.

38) 위의 책, 144ff.

‘다른 육체’에 대해 헬미니악은 동성 간 성관계가 아닌 천사와 인간 사이의 성관계를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끝으로 헬미니악은 몇몇 성서 본문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다룬다면 대표적 사례로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 사이의 동성애를 든다.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질 때 격렬한 슬픔을 보였을 뿐 아니라(삼상 20:41-42),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애가(삼하 1:26)를 통해 두 사람 관계가 단순한 우정 이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헬미니악은 사울 역시 다윗을 사랑했다고 주장하는데, 예시로 들은 본문(삼상 16:21)을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다윗이 사울에게 왔고 그 앞에서 발기했을 때 사울은 그를 무척 사랑했다”로 임의대로 번역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고 오직 자음만으로 기록된 점을 악용,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악의적으로 번역된 사례이다. 이외에도 그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 사이에 추정되는 삼각 성관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헬미니악은 롯과 나오미, 다니엘과 환관장 등을 위시하여 성서의 주요 인물들이 상상을 초월하여 동성 간 성관계에 개방적이었다고 추정한다.³⁹⁾

헬미니악은 신약성서 인물 중 로마 백부장과 병든 하인이 동성 간 성관계를 나눈 게이라고 추정하는데, 그 증거로 하인을 일컬어 남자 연인을 가리키는 ‘내 아이’(pais)로 부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로마의 가장들이 노예를 성적으로 이용한 것은 당시로선 흔한 일이었다. 헬미니악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맞닥뜨린 동성애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소년 하인을 건강하게 치유하셨던 일이다. 이를 통해 그는 예수께서 그 시대의 동성 성관계에 궤념치 않았을 뿐 아니라(어쩌면 그 시대에 널리 만연된 동성애 성풍속을 당연히 수용),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당대 세계를 투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면서 헬미니악은 예수께서는 성적인 행실보다 믿음과 선의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⁴⁰⁾ 우리는 헬미니악에 이르러 앞서 퀴어신학자들보다 더욱 대범해지고 사악해져가는 퀴어 이론의 발전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39) 위의 책, 190.

40) 퀴어신학자들은 동성애가 죄악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격론을 벌였는데,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가 동성애에 대해 한 번도 명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인데, 즉 동성애가 심각한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동성애에 대해 논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 구약의 동성애 정죄에 대한 율법적 교리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2. 이방 문화와 달리 성에 관해 매우 보수적이고 일찍이 동성애에 대해 엄격한 교육이 이뤄졌던 팔레스타인의 유대 문화에서 동성애가 큰 사회문제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이며, 3.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고대 유대인 사회가 성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리는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동성애와 같은 폐역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 언명을 피했다고 말할 수 있다.

4. 테오도르 제닝스의 퀴어신학적 성서 왜곡

20세기 중반 서구세계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할 거라는 예단 속에서 ‘신 죽음의 신학’(死神神學 Death of God Theology)이라는 극단적인 신학 사조가 출현하여 기독교 신앙을 위협했다. 반세기 지나 이 예단은 빛나갔고 기독교 복음은 서구세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비서구세계에서 흥왕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신 신학의 토대에서 신학수업을 받았던 한 신학자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데, 그가 바로 시카고 신학교 교수인 테오도르 제닝스(T. W. Jennings, 1942~2020)이다. 제닝스는 그의 스승 토마스 알타이저(T. Altizer)보다 더 급진적으로 나아갔다. 즉 그는 한때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소멸할 세속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바로 이런 연유에서 ‘기독교 이후의 신학’(Post-Christian Theology)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2018년 8월 생전 마지막 방한 당시 공언했다.⁴¹⁾

오늘날 퀴어신학의 선봉에 선 제닝스의 대표 저작은 2003년에 출판된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Man Jesus Loved)인데 이 책의 의도는 그 자신이 밝히듯이 ‘게이적 성서 읽기’이다. 제닝스는 동성애 혐오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교회의 입장이 성서를 왜곡한다고 비판하면서, 그 귀결로 게이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성서 읽기가 실제로 성서로부터 유래하는 텍스트라고 못 박는다.⁴²⁾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혐오적 정통신학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으로, 동성애적 욕망과 관계를 긍정하는 성서 텍스트의 재해석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이성애 중심적 제도의 특권을 지지하는 신학적 해석에 도전한다.⁴³⁾ 이처럼 퀴어신학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서해석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친동성애적 성서해석을 감행하면서 전통적 결혼 및 가족제도에 반기를 제기한다.

『예수가 사랑한 남자』를 시작하면서 제닝스가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놀랍게도 “예수는 게이였는가?”이다. 그는 기독교와 성애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서 예수의 성적 애착 내지 성애 관계를 부정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전제한다. 제닝스는 특히 사랑하라는 말이 수차례 반복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13:23; 19:26; 20:2; 21:7, 20)를 주목하면서 예수와 그 제자가 육체적으로 내밀한 관계, 곧 성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성애 관계였을 개연성을 제기한다.⁴⁴⁾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안겨 누워있는 육체적·감정적 친밀함에서 평범한 사제지간이 아닌, 동성 간 육체관계를 나누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이다(요 13:21-26).

41) “노신학자의 예언 ‘기독교 없는 사회 올 것’”, 『한겨레신문』 (2018.08.31).

42) T. W. Jennings/박성훈 역,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서울: 동연, 2011), 15f.

43) 위의 책, 19ff.

44) 위의 책, 46ff

그렇다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제닝스는 논의 초기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나사로, 부자 청년, 안드레 등을 물망에 올렸다. 곧이어 베드로와 도마, 빌립,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 주변 젊은 남성들을 가능성 있는 인물로 추정하지만, 결국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제닝스는 예수가 남성들과 육체적·감정적 내밀함을 나누는 게이임을 확신하면서 좀 더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즉 그는 요한복음과 별도로 마가복음(특히 클레멘스와 카르포크라테스의 ‘비밀의 마가복음’⁴⁵⁾)에도 예수의 동성애 관계를 암시하는 자료가 수록되었다면서 ‘부유한 젊은 관원’(10:17-22)과 ‘갯세마네 동산의 별거벗은 젊은이’(14:50-52) 사건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제닝스는 마가복음 정경에 나온 자료(예수를 향한 부자 청년의 사랑의 시선, 동산에서 도망가는 별거벗은 청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부터 제거될 정도로 동성애를 암시한다고 주장한다.⁴⁶⁾ 그뿐만 아니라 제닝스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숭고한 행위도 참람하게 재해석한다. 당시 예수는 옷을 벗은 상태였고 제자들은 그의 무릎에 눕거나 가슴에 바짝 기대었는데, 이것은 육체적 성애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가 여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기괴한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⁴⁷⁾

앞서 논했던 퀴어신학자들은 주로 성서의 인물들이 동성애자였을 거라는 가설만을 제기했지만, 제닝스는 이들을 뛰어넘어 예수가 게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성서 인물들의 성정체성을 논한다. 그는 성서 안에 동성애자들이 많다고 유추하면서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삼상 18:1, 20:20; 삼하 1:26)의 애정관계를 위시하여 다윗과 사울(삼상 16:21)의 관계 역시 연인관계로 추정하고(요나단-다윗-사울의 삼각관계), 룯과 나오미(룯 4:16)의 관계를 문학작품에 최초로 등장한 레즈비언 로맨스로 상정하며, 다니엘과 환관장(단 1장)도 동성애 관계였을 가능성을 언급한다.⁴⁸⁾ 또한 예수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원했던 백부장과 종(마 8:5-13)의 관계 역시 게이 관계라고 주장한다. 제닝스는 우정과 동성애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서술되는 동성 간의 이야기를 모두 동성애로 간주하는 경향인데, 이것은 다니엘 헬미니악에게 전적으로 영향을 받은 듯하다.

제닝스는 성서의 인물들을 동성애자로 간주하는 한편으로, 명백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단정한

45) 1958년 예루살렘 교외의 마르 사바(Mar Saba)에 위치한 동방정교회 수도원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가 쓴 편지(200 C. E. 무렵으로 추정)의 18세기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모튼 스미스(M. Smith)는 ‘비밀의 마가복음’(A Secret Gospel of Mark)이라 불리는 자료를 발견했다. 이 자료는 격렬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일련의 학자들은 마가복음보다 더 초기의 마가복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46) 위의 책, 222.

47) 위의 책, 67-72, 291-298.

48) 위의 책, 444f.

성서구절들에 대해선 왜곡된 해석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구약과 신약에는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들(레 18:22; 20:13; 신 22:5; 롬 1:26-27; 고전 6:9-10; 딤후 1:10)과 함께 전통적으로 문맥상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성구들(창 19:5; 사 19:22; 유 1:7)도 있는데, 그는 오로지 다섯 구절(레 18:22와 20:13, 롬 1:26-27, 고전 6:9, 딤후 1:10)만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듯 보인다면서 상당히 많은 성서구절이 실상은 동성애와 무관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구절들을 그동안 보수주의 성서학자들이 잘못 해석하면서 동성애를 단죄했지만, 성서는 명백히 게이를 긍정한다고 주장한다.⁴⁹⁾ 또한 동성애를 죄악으로 정죄하고(동성애 혐오적) 이성애를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바라보는(이성애 중심적) 기독교의 전통적 관점이 성서를 왜곡했다고 비판한다.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제닝스는 다수의 성서 텍스트가 오히려 동성애 관계와 행위를 긍정함은 물론 찬양까지 한다고 역지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이 저주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결론짓는다.⁵⁰⁾

위 성구들에 대해 제닝스가 해석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하면, 대단히 어리석은 궤변과 비논리적인 역지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된다. 그는 성서 전체를 문맥에 따라 읽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막무가내로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명약관화하게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데, 즉 이 사건이 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집단 강간을 저지르려는 불법을 지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류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왔다고 역공격하는 식이다. 과거에는 동성애자들이 자연적 순리에 위배되는 부끄러운 행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지만, 제닝스는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난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보다 이성애자들의 혐오가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이성애자들에게 돌림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있다.

제닝스는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혐오를 비판하는 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이성애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데, 특히 성애와 생식(출산)을 관련시키는 이성애 중심주의가 전통 기독교 성윤리라는 과물을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동성애 혐오의 뿌리라고 역설한다.⁵¹⁾ 그는 성애를 미화하는 만큼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과 가족제도에 적대감을 드러냄으로써, 결혼과 가족적 가치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⁵²⁾ 특히 가족이 개인에 가하는 폭력과 학대가 고조되는 역기능을 폭로함으로써 가족의 순기능마저 부정하는 경향이다. 제닝스가 유일하게 결혼의 가치를 인정할 때는 욕망을 통해 서로를 향유하는 기쁨 속에서 하나가 될 때이며,⁵³⁾ 결혼의 유일한 동기는

49) 위의 책, 373.

50) T. W. Jennings, “성서는 동성애를 ‘긍정’ 한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쿼인신학자 테오도르 제닝스 강연회 연설내용, <http://m.ildaro.com/5328>에서 인용.

51) T. W. Jennings, 『예수가 사랑한 남자』, 392.

52) 위의 책, 312, 322, 324f, 339, 343f, 352f, 361, 365, 370, 434, 447.

서로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⁵⁴⁾ 무엇보다도 짙고 넘어갈 점은, 제닝스가 가족적 유대의 단절을 요구한 예수의 선포의 진의를 왜곡함으로써, 예수 전승이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족적 유대를 반대한다고 주장한 사실이다.⁵⁵⁾ “예수는 모든 복음서에서 가족제도를 공격한다. ... 예수는 복음이 소위 가족적 가치라는 것과 화해할 수 없는 상충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⁵⁶⁾

그동안 한국 신학계에서 제닝스의 신성모독적 성서해석과 건전한 기독교 윤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에 대해 큰 문제제기가 없었지만, 제닝스가 공개석상에서 ‘기독교 소멸’과 ‘기독교 이후 신학’을 공언하는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게이로 왜곡할 뿐 아니라, 부정한 혈통의 가계도에서 태어난 역사적 예수가 명백히 성적 비규정성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사람,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라고 신성모독하는 상황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닝스가 결혼 및 가족적 가치를 폄하하고 성규범을 과녁치 않는 비윤리적 방종을 넘지시 종용하는 것도 성서에 기반한 기독교적 윤리관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거룩보다 쾌락, 성결보다 방종을 선택한 퀴어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족쇄처럼 부담스러운 존재이기에 이들이 기독교가 사라질 그 이후를 동경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인 듯하다.

III. 결론: 퀴어신학의 도전 앞에 선 한국 신학계/신학교육 갱신의 위급성

퀴어신학이 옹호하는 동성애를 정죄한 성서의 입장은 시종일관 명약관화하다. 성서에서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언급한 구절은 레 18:22와 20:13, 롬 1:24-27; 고전 6:9-10; 딤후 1:10이며, 문맥상 동성애와 관련된 성구는 창 19:5; 삿 19:22; 유 1:7이다. 먼저 레 18장과 20장 말씀은 당시 이방민족 사이에 동성애가 편만했음을 기술하면서 이 풍습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טוּבָה, toevah)⁵⁷⁾ 여긴다는 것과 이를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의 정체성으로 명령한다. 특히 20장에서 동성애(13)는 간음(10-11), 근친상간(12,14), 수간(15-16) 등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민족이 다 동성애를 해도 야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 된다고 천명한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동성애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왕상 14:24; 15:12; 22:46).

53) 위의 책, 369ff.

54) 위의 책, 387.

55) 위의 책, 322ff.

56) 위의 책, 434.

57)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오직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에만 쓰인 가운데 비정상적 성관계(레 18:26, 27, 29, 30)에 적용된 점이 주목할만하다: 신득일, “레위기의 동성애 법”,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서울: 킹덤북스, 2016), 90.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성애를 정죄한 입장은 계속 견지되는데, 특히 성서 전체를 통해 동성애에 대해 핵심적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레즈비언 성관계를 언급한 본문은 롬 1:26-27이다. 여기서 바울은 동성애로 인한 피해를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씀하면서 당시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행하던 사회를 향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 동성애 옹호세력은 바울이 오늘날과 같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무지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판했다고 주장하지만,⁵⁸⁾ 그가 동성애자를 구분하여 일부에게는 관대하고 일부에게는 가혹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울은 모든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역리’(παρά φύσιν)임을 명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언했다(고전 6:9). 단언하면, 성서가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금지한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표지, 곧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정체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성서에 근거하여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제정되면서 가장 먼저 금했던 것이 동성애였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했는데(대표적: ‘거룩한 혼인’이라는 가정윤리의 신성함을 고양시켰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성애를 하나님이 정한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범죄일 뿐 아니라 부당하고 불익한 행위로 간주), 이에 의거하여 4세기 말엽 이후 로마제국은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했다. 특히 유스티니안(Justinian) 황제는 신성모독과 동성애를 동일하게 불경건한 행위로 간주하여 538년 이를 엄금하는 법령(Justinian Novella)을 제정했는데, 여기서 동성애를 ‘자연에 반하는 행위’이자 사형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명시했다. 중세시대에 들어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입장은 더욱 공고해졌다(대표적: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성애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물론 자연에 어긋나는 죄악이라고 정죄). 14세기부터 동성애 금지는 더욱 강화됨으로써, 동성애자들에 대한 극형의 역사는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와 그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전파와 함께 지하로 숨어들었던 동성애는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후에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 풍요와 성적 쾌락의 추구를 들 수 있다. 특히 주변과 중심의 경계를 허물고 거대담론 및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확산으로 젠더주의(gender ideology)가 발흥함으로 인해 기존의 소외된 것, 주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종·민족·계급·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나서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오랜 세월 숨어있던 젠더 퀴어들(=성소수자, LGBTQ+)이 차별당해왔던 유색인종과 여성들의 틈에 끼어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성 간 성행위의 죄성을 명시한 기독교의 쇠퇴가 동성애 번성의 가장 본질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동성애를 제지했던 유일한 세력은 교회공동체였는데, 기독교가 영적·도덕적 권위를 잃으면서 동성애가 번성하게 된 것이다.

58) Cf. J.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109ff.

이러한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퀴어신학은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⁹⁾ 1. 퀴어신학은 창조질서로서의 양성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동성애에 천착함으로써 모든 시대의 인간을 향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탐구하는 신학의 본질에서 빛나간다. 2. 퀴어신학은 인간의 성적 삶의 한 부분에 속하는 주제인 동성애에만 전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신학의 보편적 주제를 담아낼 수 없다. 3. 퀴어신학은 반인륜적·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괴기스럽고 이상한 성적 관행인 동성애를 대변함으로써 정통신학의 주제들(하나님의 초월적 행위)과 연결될 수 없다. 4. 퀴어신학은 젠더 퀴어의 경험에 비추어 기존의 정통 기독교 신학을 상대화함으로써 정통신학과 양립할 수 없다. 5. 퀴어신학은 성서의 영감을 부정함으로써 성서의 본래적 의미를 간과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거부한다. 6. 퀴어신학은 성서를 왜곡하여 전통적 결혼 및 가족제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동안 한국 교계와 신학계에서는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특히 신학계는 동성애 옹호세력에 점령당한 교육 현장에서 강자의 눈치를 보면서 포퓰리즘에 영합하거나, 신성모독 수준으로 음란하게 성서를 해석하는 퀴어신학에 예언자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반동성애 사역에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평신도들과 사생결단으로 동역하는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이 교리를 굳건히 세워 영적·사상적 전쟁을 견인해 주길 기대하지만, 사실상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제 퀴어신학의 이단성 논의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으므로 위중한 문제의식 속에서 퀴어신학의 이단성을 규명해야 한다. 퀴어신학의 성서해석은 모든 이단의 성서해석 방식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성서구절만을 끌어내어 역지 주장에 꿰어맞추는데, 이것은 퀴어신학이 다른 이단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퀴어신학이 여타 이단보다 죄질이 훨씬 더 악한 것은,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란한 인간의 말로 치환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음란한 잡신으로 전락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퀴어신학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함으로써 명백히 성령 훼방죄에 상응하는 죄악을 범한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단적이고 포르노그래피적인 퀴어신학은 신학적 대화의 상대로 대우할 수 있는 정상적 신학이 아닌 철저히 분석한 후 버려야 하는 신학이라고 보는 게 옳다.⁶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게이로 가정하고 성서의 근본을 뿌리째 뒤흔드는 참람한 신학을 이단적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면, 과연 어떤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으며 대관절 이단 판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겠는지 한국 교계 및 신학계가 심각하게 고민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련된 핵심 교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일진대, 퀴어신학은 이단으로 정죄 받아

59) 이 부분은 김영한, 『퀴어신학의 도전과 정통개혁신학』 (서울: CLC, 2020), 61ff. 참조.

60) 이상원, “신학교육과 퀴어신학”,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신학교육의 개혁>(2020.09.25), 89f.

야 마땅할 것이다. 퀴어신학은 정통교리를 외설적으로 재해석함으로 교회의 순결성에 치명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상 등장했던 그 어떤 이단들보다 더 사악하게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2006년 영국에서 발행된 『퀴어성서 주석』(Queer Bible Commentary)의 한국어 번역이 마침내 출판되었다.⁶¹⁾ 이 주석은 성서 66권을 모두 동성애적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성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 책이다. 퀴어주석 한글판이 보급되어 퀴어적 해석이 일반화되고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정통신학을 의문시하고 퀴어신학에 함몰된다면, 퀴어 문화를 중심적 가치로 내세운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서적 윤리관에 대한 강한 충돌과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농후할 뿐만 아니라, 성서적 가치관을 지키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문화적·제도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⁶²⁾ 더욱이 미래 세대·대학생 세대에서 동성애 옹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상당수 크리스천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시대적 조류에 휩쓸려 동성애 포용에 앞장서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대표적 신학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친동성애적 행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현실은 퀴어신학의 폐해로부터 신학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적 과제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계와 신학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대해 단호한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퀴어신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신학교육을 점검해야 하는데, 퀴어신학 자체가 잘못된 신학교육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예비 성직자들이 올바른 신학교육을 받음으로써 인류 문명사적 위기에 봉착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땅의 미래 세대에게 인류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숭고한 가치체계와 건전한 문화유산, 무엇보다도 신실한 신앙전통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이자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상황 속에서 한국 교계와 신학계는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퀴어신학을 교리적으로 연구하여 이단으로 정죄함으로써 신학계를 새롭게 정화할 뿐만 아니라 신학교육의 갱신에 힘써야 할 것이다.

61) D. Guest 외 3인 엮음/퀴어성서주석 번역출판위원회 옮김, 『퀴어성서주석 1』(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21);
D. Guest 외 3인 엮음/퀴어성서주석 번역출판위원회 옮김, 『퀴어성서주석 2』(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22).

62) 김영한, “퀴어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I), 『크리스천투데이』(2018.02.13).

참고 문헌

- 곽혜원.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여성 신학자가 바라본 퀴어 신학의 이단성 문제”, <서울대 세미나: 신학과 윤리 포럼>(2018.08.08).
-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젠더 페미니즘과 한국 기독교의 과제”,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연구』, 서울: CLC, 2022.
- “젠더-페미니즘이 강행하는 성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직신학연구』 38권(2021).
- “한국 신학계는 패륜적 성혁명을 막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크리스천투데이』 (2020.02.03).
- 길원평 외 12인 공저. 『생명과 성』 I, 서울: 킹덤북스, 2020.
- 『생명과 성』 II, 서울: 킹덤북스, 2020.
- 김근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동성 성행위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서울: 대장간, 2020.
-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서울: 두란노서원, 2018.
- 『퀴어신학의 도전과 정통개혁신학』, 서울: CLC, 2020.
- 김영한 외 34인 공저.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서울: 킹덤북스, 2018.
- 김영한 외 8인 공저.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 연구』, 서울: CLC, 2022.
- 김준명.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서울대 세미나: 성과 생명 윤리 포럼> (2018.10.15).
- 박광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동성애 배후의 사상 연구』, 서울: 누가, 2018.
- 이상원. 『기독교 윤리학: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제』,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6.
- “신학교육과 퀴어신학”,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신학교육의 개혁>(2020.09.25),
- “퀴어신학에 대한 분석과 비판”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2018.1st).
- 이상원 외 2인 공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퀴어 신학 비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0.
- 이승구. “퀴어신학의 주장과 그 문제점들”,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신학교육의 개혁>(2020.09.25.).
- 이신열, “바즈웰의 동성애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의 저서 <기독교, 사회적 관용,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회 제45차 학술심포지엄 자료집>(2018.10.20).

- 야마구찌 사토고/양희매 옮김. 『동성애와 성경의 진실』,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18.
- Bailey, D. S.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don: Longmans, Green & Co., 1955.
- Boswell, J.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Brown, M.L./자유와인권연구소 옮김.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 서울: 콤란출판사, 2017.
- Carlin, N·Wilson, C./이승민·이진화 옮김,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선: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서울: 책갈피, 2017.
- Cheng, P. S./임유경·강주원 옮김. 『급진적인 사랑: 퀴어신학 개론』,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19.
- /이영미 옮김. 『무지개 신학: 인종, 섹슈얼리티, 영성 사이의 다리 잇기』,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19.
- Clark, E. *A Women in the Early Church*. Message of Fathers of the Church 13. Wilmington: Mavhael Glazier, 1983.
- Gest, D.외 3인 역음/퀴어성서주석 번역위원회 옮김. 『퀴어성서주석 1』,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21.
- Gest, D.외 3인 역음/퀴어성서주석 번역위원회 옮김. 『퀴어성서주석 2』,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22.
- Grenz, S. J./김대중 옮김.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Helminiak, D. A./김강일 옮김.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서울: 해울, 2003.
- Hollywood, A. “Queering the Beguines: Mechthild of Magdeburg, Hadewijch of Anvers.”, in: *Queer Theology*, MA: Blackwell, 2007.
- Jennings, T. W. “성서는 동성애를 ‘긍정’한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퀴어 신학자 테드 제닝스 강연회 연설내용, <http://m.ildaro.com/5328>.
- /박성훈 옮김.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서울: 동연, 2011.
- Kuby, G./정소영 옮김. 『글로벌 성혁명: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라』, 서울: 밝은생각, 2018.
- Loader, W. 외 3인/양혜원 옮김, 『동성애에 대한 두가지 견해』, 서울: IVP, 2018.
- Wink, W./한성수 옮김.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18.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Queer Theology(Subtitle: Criticism of Biblical Distortion by Representative Queer Theologians)

Queer theology, which theologically justifies homosexuality, was born in the political struggle for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The opponent of the homosexual fighting force is the traditional Christian theology, because it was decided that the final justification of homosexuality was impossible without attacking the Bible and traditional theology, which condemned same-sex sex for over 2,000 years. Therefore, a homosexual-friendly theological system that disturbs the foundation of traditional theology has been established, which is a bizarre queer theology that cannot be called theology.

The ultimate purpose of queer theology is to theologically justify homosexuality, which was excluded as bizarre in traditional theology, and to establish a theological system that normalizes abnormal same-sex marriag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distortions of the Bible practiced by representative queer theologians such as D. S. Bailey, J. Boswell, D. Heminiak, and T. Jennings.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clarify the fact that queer theology not only distorts the Bible that consistently criticizes homosexuality, but is also a heresy that is incompatible with Christian faith and theology.

In the meantime, the Korean theological community has not been able to voice a prophetic criticism toward the blasphemous queer theology. Queer theology is more sinful than other heresies, because it not only replaces the holy word of God with the words of lewd men, but also reduces the holy God into a lewd bastard. Queer theology undermines Christian faith and theology more seriously than any other heresy in Christian history by obscenely reinterpreting the Bible as well as orthodox doctrine.

Recently, in Korea's representative theological education field, homosexual-friendly behavior appears, which imposes a responsible task to protect seminarians from the dangers of queer theology. Therefore, the Korean church should hurry to express their firm stance on queer theology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e Korean church should purify the theological world anew and strive to renew theological education. Through this, prospective clergy must receive proper theological education so that they can lead this age facing a crisis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with the Spirit of God's truth.

[Key Word]

Queer Theology, Queer Bible Commentary, homosexuality, same-sex marriage, theological education